택시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 서비스질·투명성 높인다

국토부, 14년만에 개편…혁신방안 마련

야간·주말 등 24시간 공제서비스 도입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하반기 중 도입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지난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조3000억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돼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우선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제서비스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인 승객이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후에 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보상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자(사고 피해자) 관점의 분쟁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방안도 추진된다.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해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풀을 구성하고 추천·임명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기동취재본부

현대백화점, '씨엘비베이커리 새우바게트 판매' 30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하늘정원에서 직원이 '씨엘비베이커리'의 새우바게트를 소개하고 있다. '씨엘비베이커리'의 새우바게트는 건새우를 갈아넣어 만든 바게트빵 속에 달콤한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광주·전남 '5월 광공업 생산' 안정세 이어가

전년 동월 대비 '광주 38.7%'·'전남 11.8%' 증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주춤했던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이 올해 들어 안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6월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제공한 '2021년 5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9.7%, 26.7% 증가했다.

제조업 경기 지표인 광공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26.1% 증가했다. 기계장비, 섬유제품, 음료 등은 감소했지만 자동차·고무·플라스틱, 전기장비는 늘었다.

광공업 업종별 생산은 냉장고·납축전지·커넥터 등 전기장비(92.5%)와 에어컨·압축기·금형 등 기계장비(45.05), RV승용차·자동차KD세트·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19.1%) 관련 분야는 증가한 반면, 음료(-22.55), 식료품(-19.0%)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26.7% 증가한 가운데 식료품, 섬유제품 등은 줄었지만 전기장비, 자동차, 전자부품은 등은 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9.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가운데 백화점(1.3%)과 대형마트(0.8%) 모두 소폭 늘었다.

상품군 별로 음식료품,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가전제품은 늘었지만 화장품, 가타상품, 의복은 감소했다.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250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7% 증가했다.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13조9539억원 대비 광주는 1.8%를 차지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의 발주량 감소로 44.9% 줄었고, 민간부문은 부동산업, 건설업 등의 증가로 272.5% 증가했다.전남지역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11.8%, 7.2% 각각 늘었다.

재고는 2.3% 감소한 가운데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등은 늘었지만 석유정제,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업종별 생산은 열연강대·아연도강판·냉연강판·강판 등 1차 금속(40.2%)과 공업용접착제·ABS수지·합성고무 등 화학제품(13.5%), 나프타·제트유·휘발유·솔벤트 등 석유정제(18.7%)는 증가했다.

반면, 전기·가스·증기 등 전기업(-8.5%)과 기타운송장비(-12.7%), 금속가공(-22.8%)은 줄었다.

광공업 출하는 7.2% 증가한 가운데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전기·가스·증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은 줄었고, 1차 금속, 화학제품, 석유정제 등은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8.2로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다.

상품군 별로 화장품, 의복, 기타상품, 신발·가방은 감소했지만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 음식료품은 늘었다.

기동취재본부

올 여름 백신 접종하고 농촌으로…여행지 15곳 추천

농식품부, 예방접종자 대상 농촌관광 행사

오늘부터 선착순 1000명에게 선물도 증정

올 여름 휴가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농촌 마을로 안전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이 가능한 안전농촌 여행지 15곳을 추천했다.

추천 여행지는 가족과 함께 시골의 맛을 담아 삼시세끼를 즐길 수 있는 가족소풍형 인천 강화군 국화리팜랜드 마을, 여유로운 농촌 마을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양평 보릿고개마을, 홍천강을 낀 마을에서 당나귀와 친해질 수 있는 홍천동키마을, 편백숲을 활용해 치유와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가족단위 숙박형 완주 경천애인마을 등이다.

또 한 여름밤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은하수 맛집인 평창 청옥산육백마지기 어름치마을, 해발 1000m 고지대에서 은하수를 바라보는 소금강마을, 은하수와 아름다운 낙조를 함께 볼 수 있는 충남 홍성 속동갯벌마을 등도 있다.

농식품부는 1일부터 백신 접종자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여행지를 방문해 인증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웰촌포털 누리집(www.welchon.com) 행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여행지를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와 함께 찍은

여행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증하면 된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올해 여름 휴가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여행을 권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계절별 농촌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코레일, 승차권 발매 제한 완화…4→6매로 변경

15일부터 8매로 확대 예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1일부터 승차권 발매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우선 사적모임 가능 인원에 맞춰 기존 4매로 제한했던 승차권 구입 매수를 7월1일부터 6매로 늘리고, 7월15일부터는 8매로 확대한다.

또한 순방향만 판매하던 동반석을 모두 발매하고 입석 승차권도 제한적으로 발매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창측 좌석 우선 배정, 입석발매 중지, 좌석의 50% 제한

판매 등 이용객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차 내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해왔다.

창측 우선발매 제도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뉴시스

라벨 비우고 친환경 입다…제주삼다수 가정배송 시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이 다음달 1일부터 무라벨 제품 '제주삼다수 그린'을 삼다수앱에서 판매한다. 가정배송으로 편리하게 음용 가능하다.

삼다수 그린은 무라벨·무색병·무색캡으로 만들었다. 지난달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첫 선을 보였다. 페트병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일 재질 무색병으로 바꿨다. 뚜껑은 친환경 합성수지(HDPE)를 사용했다.

법적 의무가 아닌 캡에도 색을 입히지 않아 친환경 의미를 더욱 높였다. 삼다수 그린 500㎖·2ℓ 2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멤버십 서비스 '제주삼다수 클럽'을 운영 중이다. 4900원에 유료 회원 가입 시 500㎖ 제품 20개를 증정한다. 자동결제 할인 등 총 연간 2만400원 혜택을 제공한다.

자원 순환 유도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삼다수앱을 통해 주문한 제품을 음용 후 모아두면 가정배송 전담 직원이 회수한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친환경 경영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절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주삼다수 그린 유통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항공, 김포~광주노선 하루 2회 정기편 운항

이달 한 달간 왕복 5000원 할인쿠폰 제공

제주항공은 작년 6월부터 부정기로 운항하던 김포~광주 노선을 1일부터 정기편으로 전환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김포~광주 노선이 정기편으로 전환되면서 제주항공은 국내선에 총 10개의 정기노선을 보유하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선에 4개(김포~여수, 여수~제주, 제주~군산, 김포~광주)의 신규노선이 추가됐다.

정기편 이외에도 지난 4월부터 무안~제주 노선에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 제주항공이 실제 운항하고 있는 국내선 노선은 총 11개다.

제주항공의 김포~광주 노선은 '하계운항기간' 동안 매일 2회(주14회) 운항한다. 김포 발 광주 행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35에 출발하며, 광주 발 김포 행은 오전 11시50분과 오후 8시에 출발하는 일정이다.

이번 김포~광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기념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출발하는 왕복항공편을 대상으로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쿠폰 제공기간은 7월 한달이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나의쿠폰'을 클릭 후 '김포광주'를 입력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단, 제공되는 할인쿠폰은 타 할인쿠폰과 중복 사용 할 수 없으며 결제 시 1개의 쿠폰만 사용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